

메시지 4

빌립보서—그리스도를 모든 것으로 취함으로 그리스도를 체험함

성경: 빌 1:19-21, 2:5, 3:8-9, 13-14, 20-21, 4:11-13

I.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활로 취해야 한다—빌 1:21.

- A. 바울의 생활은 그리스도를 사는 삶이었다. 바울은 율법을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살고자 했으며, 율법 안에서 발견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했다(빌 3:9).
- B. 바울이 그리스도를 산 것은 그리스도께서 그의 안에 사셨기 때문이다(갈 2:20). 그와 그리스도는 한 생명과 한 생활을 가졌다. 그들은 한 인격으로 함께 살았다.
- C. 그리스도에 대한 정상적인 체험은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고, 그리스도를 사는 것은 환경이 어떠한지 항상 그리스도를 확대하는 것이다.

II.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표현으로 취해야 한다—빌 1:19-20.

- A. 사도의 몸이 고난을 받을 때, 그리스도께서 확대되었다. 즉 그분께서 (무한히) 위대하시다는 것이 드러나고 선포되었으며, 그분께서 높아지시고 또 높이 찬양을 받으셨다.
- B. 사도의 고난은 그리스도께서 무한히 위대하시다는 것을 표현할 기회를 사도에게 준 것이었다.
- C. 어떤 상황에서나 그리스도를 확대하는 것이 그분을 최고의 누림으로 체험하는 것이다.

III.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우리의 생각으로 취해야 한다—빌 2:5.

- A. “여러분 안에 이 생각을 품으십시오.”는 또한 “여러분 안에 이것을 생각하십시오.”라고 번역될 수 있다. ‘이것’은 3절에 있는 ‘여기는 것’과 4절에 있는 ‘귀하게 여기는 것’을 가리킨다.
- B.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비우시고 노예의 모습을 가지시어 자신을 낮추시고 사람의 형태로 나타나셨을 때, 이러한 사고(思考), 이러한 생각이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—빌 2:7-8.
- C. 이러한 생각을 가지려면,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장 안에서 그분과 하나 되어야 한다(빌 1:8). 그리스도를 체험하려면, 우리는 그분의 부드러운 내적 느낌과 생각에서 하나 되는 정도까지 그분과 하나 되어야 한다—비교 출 21:1-6.

IV.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살아낸 의로 취해야 한다—빌 3:9.

- A. 바울은 주님께 돌이켰을 때 율법과 그의 이전 종교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져 ‘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’이 되었다—고후 12:2.
- B. 그리스도를 체험할 때 바울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발견되었다. 그는 스스로 율법을 지킴으로 얻은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에게서 온 의를 가졌는데, 이 의는 바울에게서 살아 나타나 의로 표현되신 그리스도 자신이다—빌 3:9.
- C. 이것은 바울에게 의의 사역을 주었는데, 이 의는 그리스도를 살아 나타내고 참되게 표현하는 것이다—고후 3:9.

V.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탁월한 것으로 여겨야 한다—빌 3:8.

- A.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탁월한 것은 그분의 인격이 탁월하기 때문이다—비교 뱀전 1:8, 2:7상.
- B.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리스도를 계시하셨을 때에(갈 1:15-16), 바울은 탁월하시고 극도로 고귀하시며 지극히 보배로우시고 뛰어난 가치를 지니신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탁월함을 훨씬 능가하신다는 것을 보았다.

- C.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탁월한 것이라고 여기게 되었다.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율법과 이 율법에 따라 세워진 종교뿐 아니라, 다른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겼다.

VI.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목표로 취해야 한다—빌 3:13-14.

- A. 바울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가장 충만하게 누리고 얻는 것이었다.
- B. 바울은 그리스도를 가장 충만하게 얻기 위하여 유대교에서의 체험들을 버렸을 뿐만 아니라, 그리스도에 대한 과거의 체험 가운데 머물지도 않았다. 우리가 과거의 체험을 잊지 않고 그 안에 머문다면, 그 체험들이 아무리 참된 것이었을지라도 그리스도를 더욱더 추구하는 데 방해가 된다.
- C. 바울은 상을 얻기 위해 목표를 향해 달렸는데, 이 상은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를 최고도로 누리는 것이고, 신약의 경주에서 승리한 경주자들에게 주는 보상이다—고전 9:24-27.

VII.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미덕들로 취해야 한다—빌 4:8.

- A.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(빌 4:4)이 5절부터 9절까지에 나열된 뛰어난 미덕들을 갖는 비결이다.
- B. 평안의 하나님께서 4장 8절에 언급된 모든 미덕들의 근원이다. 우리가 그분과 함께 교통하고 그분과 함께함으로 이 모든 미덕이 우리 생활 속에서 산출될 것이다.

VIII.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능력으로 취해야 한다—빌 4:13.

- A.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던 사람이었으며(고후 12:2),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갈망했다. 이제 바울은 이분, 곧 자신에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선포했다.
- B. 이 말은 그가 그리스도를 체험한 것에 관한 모든 것을 포함한 결론의 말이다. 이 말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우리와 주님의 유기적인 관계에 관한 주님의 말씀인 “나를 떠나서는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.”를 다른 표현 방법으로 말한 것이다.
- C. ‘능력 주시는’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‘안에서부터 역동적으로 만든다.’라는 뜻이다.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거하신다(골 1:27). 그분은 밖에서부터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, 안에서부터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며 우리를 역동적으로 만드신다. 이렇게 내적으로 능력을 얻음으로써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.

IX.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비결로 취해야 한다—빌 4:11-12.

- A. “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.”는 직역하면, “나는 입문하였습니다.”를 의미한다. 여기에서의 이 은유는 어떤 사람이 비밀 단체에 입문하여 그 단체의 기본적인 원칙을 배운 것을 가리킨다.
- B. 바울은 그리스도께 돌이킨 후,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입문하였다.
- C. 그런 다음 바울은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취하고, 그리스도를 살고, 그리스도를 확대하고, 그리스도를 얻고, 교회생활을 하는 비결을 배웠는데, 이 모든 것이 기본적인 원칙들이다.

X.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기대로 취해야 한다—빌 3:20-21.

- A. 우리의 몸이 변형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최종 완결이다. 하나님은 그분의 구원 안에서 먼저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하셨고(요 3:6), 지금은 우리의 혼을 변화시키고 계시며(롬 12:2), 결국에는 다시 오셔서 그분의 성도들을 영광스럽게 하실 때 우리의 몸을 변형시키셔서(롬 8:30) 우리 존재의 세 부분 모두를 그리스도와 똑같이 만드실 것이다.
- B. 우리는 하늘들에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리고 있다. 그러므로 우리의 장래는 그분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—살전 1:10.
- C. 우리의 생활은 우리가 이 땅 위에 아무런 소망을 두지 않고 이 시대에 어떤 긍정적인 운명도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선포하는 생활이고,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신 주님이 오고 계시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생활이다.
- D. 이것이 교회생활을 위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지배하고 붙잡고 지켜준다.